

교육과 투자

이 인 화

조선대 환경학과 교수

교육은 투자이다. 교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통념이다. 그런데 요즘은 질적 향상은 고사하고 교육풍토마저 위협하고 투자 아닌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교단에 서기 위하여 공공연히 금품이 제공되고 자녀의 성적을 실력향상으로 언지 않고 돈으로 조작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물론 투자면에서 보면 가장 효율적이고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이다. 어느 제한된 일부계층과 파행적인 학교 운영이 자행되는 곳에서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현상은 전반적인 사회풍토의 반영일 수도 있기에 문제는 심각하다.

교육계에서의 금품수수는 기초교육과정인 국민학교에서부터 최고 학부인 대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국민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수단으로, 중·고등학교에서는 성적에 관계되는 압력수단으로, 대학에서는 교직을 얻기 위한 형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로 지적될 수 있다.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 꺼내기조차 싫기 때문인지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논의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은 듯싶다. 글쓴이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교육계는 자신들의 문제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다른 문제에서는 매우 개혁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계는 자신들이 둘러친 성 안에서 안주하고 외부의 감시에서 단절될 수 있었는지 모른다. 보수적인 집단일수록 부패의 소리는 더 크다는 것이 요즘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로부터 확인된다.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집단이라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집단과 나라의 살림을 맡는 관료집단 및 국회, 그리고 나라의 장래를 책임지고 사람을 교육하는 교육계를 들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이들 집단은 그 특성상 국민들이 깊이 관여할 수도, 내부 사정을 알 수도 없는 상태가 전국 이후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한가? 국민들의 믿음을 산산조각내고, 엄청난 세금을 유용하고 낭비하며 급기야는 외국 사기꾼들에게 사기까지 당하는 웃지 못할, 아니 땅을 치고 통곡해야 할 일들이 한 돌씩도 아니고 시리즈로 계속 터져 나오니 겁이 날 지경이다. 나라의 행정기관들은 지도자들의 힘으로 바로잡아 질 수 있다고 하

자.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기관이고 교육자이고 피교육자이다. 현재의 교육이 실패하면 미래도 실패하는 것은 자명하다. 썩은 물에서 물고기들이 숨쉴 수 없어 폐측음 당하듯이 오염된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끈게 성장하기를 바랄 수 있는가? 차라리 자갈밭에 구운 밤을 심고 썩이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이 나올 것이다. 오늘날 타성에 빠져있는 교육계는 타성에 젖어있는 교육자들에 의하여 여전히 타성에 깊이 안주하고 있다.

교육기관 주변에는 많은 학부모 모임들이 있다. 육성회, 자모회, 학부모협의회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결성되어 있다.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학부모의 힘을 모으자는 의도임에는 모두 뜻을 같이 한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봉사모임에 서로 참여하기를 앓다툼다고 한다. 돈을 회사하고 기증품을 내놓는다. 이들 모임의 순기능도 인정할 수 있겠지만 역기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아름답고 생산적이다. 그러나 이들 모임에 참가하지 않는 자녀가 불이익이나 소외감을 느낀다면 차라리 존재하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본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바라고 남들보다 배타적인 측면에 있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교육에서도 예외는 아닌 듯싶다. 그러나 학생들의 재능과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학부모의 재력에 의하여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의 편애가 존재한다면, 선생님과 학생 모두에게 불행이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학생들로부터 존경심을 상실하게 되고 학생들은 황금만능주의와 소외감이 싹쓸 수 있기 때문이다. 돈으로 자신의 능력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경험을 가진 학생이 사회에 나가 취할 행동은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교육의 질적 향상은 현재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지만 그보다 앞서 더욱 절실한 문제는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이 아닌가 싶다. 학부모의 존치를 아무 거리낌 없이 받는 교육자가 있는 한, 돈으로 교육자가 채용되는 관계가 존재하는 한, 바른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눈을 대학으로 돌려보자. 대학 캠퍼스 안에서도 또 다른 비극이 존재한다. 교수와 학생이 등록금 인상폭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이상한 풍토가 조성되어 있다. 속사정이야 어찌 되었든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간에 교육비 책정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것은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 아닌가 싶다. 차라리 등록금 책정방식을 가지고 토론한다면 그래도 합리적인 자세라고 위안할 수 있겠으나 매년 몇 퍼센트 인상폭으로 해야한다고 학생과 교수 간에 협의가 존재하는 한 건전한 교육풍토가 자리잡힐 수 있을까? 우골탑이라고 지칭되던 사학의 제정 자립도로 보나 국가의 지원 규모로 보나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는 높지 않을 수 없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책정된 등록금보다 낮은 질의 교육을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그 발로가 되고 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재정을 운영하려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다.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참가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재정문제를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서는 사학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정부에게 모든 부담을 요구해서는 안 되겠지만 교육풍토 조성하고 교육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의 원인은 무엇일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의 규명 없이는 문제해결도

기대할 수 없다.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교육환경의 열악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이다. 아직도 대도시의 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50명을 상회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교육하기에는 벅찬 인원임에는 틀림없다.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의 관심을 끌지 않고서는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겠다는 조바심이 생길 만도 하다. 대학에서도 교수 일인당 학생수는 40~45명이 평균 수준이다. 명색이 대학에서도 교수와 학생간에 토론 한번 해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어차피 주입식 교수강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역시 학생들이 피해의식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닌가? 정부에서는 투자의 제일 순위로 교육자 일인당 학생수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또 다른 원인으로서는 잘못된 관행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나 역시 괜찮겠지 하는 타성에서 문제가 싹트고 급기야는 끓아 터진다. 작년 일로 기억되는데, 대학의 부정 입학이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학교의 제정을 조달하기 위하여 범법을 저지른 곳도 있었고 개인의 착복을 위해 저지른 일도 있었다. 이 모든 일들이 범법이

가능한 풍토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던가? 과거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눈감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학교의 비리가 폭로될 때마다 항상 감독기관의 공무원이 연루되어 있는 사실에서도 전반적인 사회 풍토와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교육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 번 오염된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듯, 잘못된 교육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몇 배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높은 교육적 열의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의 커다란 장점이다. 덕분에 우수한 인적자원을 길러내 왔고 현재도 이에 변함이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인식하듯이 현재의 교육 여건과 잘못된 관행들은 시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교육은 시대에 뒤지고 불신의 깊은 수렁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은 투자이다. 그러나 미래를 보고 옹계 투자할 때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적어도 교육에서만큼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않기 때문이다. ▣